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3

왕국과 교회

성경: 마 16:18-19, 18:15-22, 롬 14:17, 계 1:6, 골 1:12-13

I. 성경은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그 후에 교회를 제시한다. 왕국이 있을 때 교회가 산출된다 — 마 4:23, 16:18-19.

- A.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이다. 신성한 생명이 왕국이며, 이 생명이 교회를 산출한다 — 요 3:3, 5, 마 7:14, 21, 19:17, 29, 25:46.
1. 왕국은 생명이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는 생명의 영역이며, 이 영역이 왕국이다.
 2. 복음은 신성한 생명을 가져오고 이 생명은 그 영역을 갖는데, 이 영역이 바로 왕국이다. 영역을 갖고 있는 신성한 생명이 교회를 산출한다 — 딤후 1:10.
 3. 왕국 복음은 교회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왕국이 생명 자체이고 교회는 생명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마 4:23, 행 8:12.
- B. 왕국은 교회의 실재이다. 그러므로 왕국 생활을 떠나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할 수 없다 — 마 5:3, 16:18-19, 계 1:4-6, 9.
1. 천국의 실재(마 5-7장)가 교회생활의 내용이다. 왕국의 실재가 없다면 교회는 공허한 것이다.
 2. 왕국 생활이 교회생활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체적으로 왕국 생활 안에서 살 때 자연스럽게 교회생활을 하게 된다 — 롬 14:17.
 3. 왕국의 실재 안에 살지 않는 믿는 이는 교회의 구조물 안으로 건축될 수 없다 — 엡 2:22.
- C. 교회의 실재인 왕국이 없다면 교회가 건축될 수 없다 — 마 16:18-19.
1. 교회는 왕국의 권위를 통해 존재하게 된다.
 2. 교회 건축을 가능하게 하도록 왕국 열쇠들이 주어졌다 — 마 16:19, 18:18, 비교 요 20:23.
 3. 천국이 한 무리의 믿는 이들에게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이 믿는 이들은 교회로 건축될 수 있다 — 골 2:19, 엡 4:15-16.
- D. 교회생활 안에 있는 활력 그룹들의 목적은 왕국 생활, 곧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활력 그룹은 교회를 참되게 대표한다 — 마 18:15-22.

II.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오늘날 믿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한다 — 마 16:18-19, 18:17-18, 13:44-46, 롬 14:17, 고전 4:20, 엡 2:19, 골 4:11, 계 1:4-6.

- A. 주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마다 왕국과 연관 지어 교회를 언급하셨다. 이것은 왕국과 교회가 얼마나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 준다 — 마 16:18-19, 18:17-18.
1. 로마서 14장 17절은 이 시대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2.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생활(17절)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권위의 측면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3.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오는 ‘동일한 시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킨다.
- B.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 ‘왕국’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교회는 왕국을 대표한다.
- C.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스림과 통치와 징계와 훈련을 받고 있다 — 고전 6:9-10, 갈 5:19-21, 엡 5:5.
- D.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보물인 왕국과 진주인 교회 두 가지 안에 동시에 있다 — 마 13:44-46.
- E.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우리는 타고난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할 때에만 실지로 왕국 안에 있게 된다 — 롬 8:4, 갈 5:16, 25.

III. 아버지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 — 골 1:12-13.

- A.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세 시대, 곧 교회가 존재하는 현시대와 천년왕국이 있을 다가을 시대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을 영원한 시대로 이루어진다 — 골 1:13.
1.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며, 이 왕국이 곧 교회의 실재이다.
 2. 오늘날 교회생활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며, 이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 골 4:15-16.
- B.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골 1:13.
1.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한 생명의 체현과 표현이다. 따라서 아들의 왕국은 생명의 영역이다 — 요일 5:11-12, 요 1:4.
 2. 우리가 옮겨져 들어간 왕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다. 이 생명의 영역은 두려움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다 — 골 1:13.
 3.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인 왕국은 생명과 빛과 사랑이 충만한 영역이다 — 벧전 2:9.
 4. 아버지의 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표현이다 — 요 1:18, 4, 요일 1:2.
 - a.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부활 안에 있는 권위를 가지시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체현이 되신다 — 마 3:17.
 - b.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다 — 마 17:5.
 - 1) 아들 안에 체현된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 요일 5:11-12, 요 3:16.
 - 2) 신성한 사랑의 대상은 부활 안에 있는 권위를 가지시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체현이 되신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다.
 5.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아들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 요일 5:11-12.
 - a. 부활 안에 계신 아들은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시고,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써 우리를 통치하신다 — 벧전 1:3, 롬 6:4-5, 고전 15:45하.

- b. 우리가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신 아들에 의해 살 때, 우리는 그분의 왕국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누린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한다 — 골 3:4, 요 6:57.
- c.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유쾌한 것, 곧 기쁨의 문제이다 — 마 3:17, 17:5.
- C.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실재와 실지 상태를 갖는다 — 골 2:19.
- D.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주적인 한 새사람의 실재와 실지 상태를 갖는다 — 엡 2:15, 4:24, 골 3:10-11.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바울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골 1:13)라고 말한다. 어둠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를 가리킨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탄은 어둠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기묘한 빛 안으로 구출하셨다. 어둠은 죽음인 사탄이지만, 빛은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된다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로부터 구출되는 것이다(히 2:14, 요 17:15).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골 2:14-15), 그리고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요 5:24)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출되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다. 아들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권위이다(계 11:15, 12:10).

신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한 생명의 표현과 체현이다. 이것은 아들의 왕국이 생명의 영역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옮겨져 들어간 왕국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라는 사실은 이 생명의 영역이 두려움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음을 가리킨다. 우리가 오늘날 있는 왕국은 생명과 빛과 사랑으로 충만한 왕국이다.

아버지의 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표현이다(요 1:18, 4, 요일 1:2).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표현되신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부활 안에서 권위를 가지시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체현이 되신다.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이다. 아들 안에 체현된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신성한 사랑의 대상은 부활 안에서 권위를 가지시고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체현이 되신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아들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요일 5:12). 부활 안에 계신 아들(벧전 1:3, 롬 6:4-5)은 지금 생명 주시는 영이다(고전 15:45하). 그분은 부활 생명 안에서 사랑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다. 우리가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아들에 의해 살 때, 우리는 아들의 왕국 안에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들을 누린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다스림을 받는 영역 안으로 옮겨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과 제한 아래서 참된 자유를 갖는다. 이 자유는 생명과 함께하며 빛 아래에 있는, 사랑 안에서의 합당한 자유이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진다는 것의 의미이다. 이 왕국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며 교회생활을 갖는다.

교회가 존재하는 현시대와 천년왕국이 있을 다가올 시대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을 영원한 시대로 이루어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세 시대, 곧 교회가 존재하는 현시대와 천년왕국이 있을 다가올 시대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을 영원한 시대로 이루어진다. 왕국의 이 세 방면들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바울에 의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여겨진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기를 기뻐하신다. 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을 때, 아버지는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다.”(마 3:17)라고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변형되셨을 때에도 아버지는 동일한 선포를 하셨다(마 17:5).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즐거움과 기쁨의 문제이다. 이것이 이 왕국이 오직 세 부분, 곧 교회생활의 부분, 천년왕국에서의 하늘에 속한 부분, 교회와 왕국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구성되는 이유이다. 이 세 부분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기쁨의 문제이다. 아버지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사탄의 어둠에서 왕국의 이 즐거운 부분 안으로 옮기셨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며, 이 왕국이 곧 교회의 실재임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며, 이 왕국이 곧 교회의 실재이다. 오늘날 교회생활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며, 이 왕국은 하나님의 아들만큼이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이 기쁨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왕국의 기쁨의 부분을 그분 자신의 것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신성한 왕국의 기쁨의 부분으로서의 교회는 골로새서,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포함한 몫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책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들에게 큰 축복으로 여겨진다(12절).

모든 믿는 이들은 왕국의 이 방면 안으로 옮겨졌음

요한복음 3장 5절은 모든 믿는 이들이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졌음을 알려 준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어둠에서 왕국의 이 기쁨의 방면 안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으므로 왕국의 이 기쁨의 부분을 아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구원과 거듭남을 통해 그분의 아들을 믿은 모든 믿는 이들은 왕국의 이 부분 안으로 옮겨졌다.(*신약의 결론, 왕국, 47-49쪽*)

활력 그룹의 목적

주님께서 활력 그룹에 대한 이 교통을 다시 열어 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 이 교통은 이 년 넘게 사탄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활력 그룹의 내재적인 의미 안에 있는 활력 그룹의 목적을 보기 원한다. 활력 그룹의 목적은 두 종류의 생활을 사는 것인데, 그것은 왕국 생활과 교회생활이다.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생활에서 부족이 있음을 회개하고 인정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수년 동안 회복 안에 있어 왔을지라도 우리는 활력 그룹이 왕국 생활과 교회생활을 위한 것임을 보지 못했다.

신약의 계시는 이 두 생활에 관한 것이다. 사복음서의 중심은 왕국이다.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왕국의 진리를 만지도록 이끄는 두 권의 책이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요점은 천국이고, 요한이 만진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물론,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다. 그러나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거듭났다. 만일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요 3:3, 5).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의 중심은 교회생활이다.

활력 그룹 집회의 실행에 관한 우리의 가르침의 성경적인 근거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와 디모데

후서 2장 22절이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왕국 생활 안에서 소그룹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교회의 하락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생활을 갖는지를 가르친다.

왕국 생활을 삶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기도로 읽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절들은 우리가 어떻게 왕국 생활을 사는지를 계시한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욱이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그대는 가서, 그대와 그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십시오.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만일 죄지은 이 사람이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다음 절은 우리가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즉 교회의 교통 밖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 18절은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17절과 18절 사이에 있는 연결을 보아야 한다. 17절의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죄인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은 너무 낮다. 그러나 18절은 우리가 우리의 묶고 푸는 기도에 의해 하늘을 만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활력 그룹의 기도이다. 19절은 “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지는, 조화 가운데 있는 두세 사람의 활력 그룹의 실행이다. 이들은 16절에 언급된 두세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이들은 활력 그룹의 구성원들이다.

만일 한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는 먼저 사랑 안에서 그를 다루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다룰 수 없다면, 우리는 그를 접촉하기 위해 한두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 여전히 다룰 수 없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말해야 하며, 만일 교회도 다룰 수 없다면 그 죄 있는 형제는 교회의 교통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묶고 푸는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고 조화 가운데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 그 기도를 성취하실 것이다. 20절은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활력 그룹의 실재이다. 이 두세 사람은 그들의 목적을 위해 그들의 이름 안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 주님의 이름 안으로 모인 것이다.

많은 때 우리는 어떤 성도에게 희망이 없는 경우를 느낀다. 우리는 소그룹에서 그를 향한 이 같은 느낌을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17절로 우리의 소그룹 집회를 마친다. 우리는 사탄을 묶고 푸는 기도로 하늘에 오르기 위해 18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다리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와 교회는 이 형제에 대해 방법이 없을 때 그 형제를 포기해야 하는가?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주님은 더 나아가 우리가 사탄을 묶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조화 가운데 함께 기도함으로써 묶어야 하는 자를 묶고 묶인 자를 풀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해 주고 있는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덮어 줌으로써 어떤 의견도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묶어야 할 자, 곧 사탄을 묶어야 하며, 조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죄를 지은 자, 곧 사탄에게 묶인 자를 해방시켜야 한다. 조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음악 소리가 화음을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피아노를 합당하게 연주할 때, 피아노의 많은 건반들은 조화로운 음악을 산출하기 위해 그러한 방식으로 연주된다. 우리가 다시 타락하는, 죄를 짓는 어떤 이들을 위해 조화 가운데 기도할 때,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귀에 조화로운 음악처럼 들린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베드로는 주님께 와서 한 가지를 질문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은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라도 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베드로에게는 그에게 죄를 지었던 형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는 이 형제를 다시 용서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제가 그를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일곱 번입니까?”라고 물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 곧 사백구십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사백구십 번까지 용서해 주는 영을 갖는다면, 참으로 그 사람은 회복될 것이다. 활력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가?

활력 그룹은 교회의 참된 표현이다.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바울의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바울은 이 죄 있는 형제가 쫓겨났을 때 평안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을 돌보기 위해 어떤 것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히 품고 용서하는 것이다. 방문하는 것은 소중히 품는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인들을 소중히 품기 위해 디도를 보내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말했다. 용서하는 것은 소중히 품는 것 다음에 온다. 그런 후에 우리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얻을 수 있다.

하나님-사람의 생활

왕국 생활은 하나님-사람의 생활이다.

죄를 지은 형제를 활력 그룹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함

요약해서 말하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가 활력 그룹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이다. 우리는 가서 우리와 그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한다. 만일 그가 우리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얻는다(15절). 만일 그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할 수 있다(16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말해야 한다(17상절).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활력 그룹은 왕국의 권위인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여 기도해야 한다(17하-18절, 16:18-19). 이러한 상황은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과 조화를 이루고(18:19-20), 용서하는 영을 가진(21-22절) 활력 그룹에 의해 다루어진다. 이렇게 하여 활력 그룹은 그리스도께서 땅에 사셨을 때 가졌던 하나님-사람의 생활을 산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76-79, 82-83쪽)*